

# 전남소방본부, 응급구조 기술 전국 1위

구형근 소방장 등 대원 4명 1등급 특별승진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 주최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 분야'에서 우승해 응급구조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선수단 등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전남소방본부에선 구형근 소방장 등 대원 4명이 참가해 전문심장 생생술과 다수사상 대응전술 2종목 합산 점수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해 우승했다.

특히 대원들은 전남소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아 의미를 더했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기술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한 대원들의 노력과 팍팍울의 결실이 자랑스럽다"며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시·도 19개 팀의 우수 인員들이 참가해 화재진술, 구조, 구급, 최강



소방관 등 12개 종목별로 기술을 겨루는 국내 유일의 대회다. 우승한 화순소방서 구형근·고

미정 소방장, 김경천 소방사, 나주 소방서 나영철 소방장은 1등급 특별승진을 하게 된다.

포토뉴스



순천기적의도서관 27기 어린이사서, 진해기적의도서관 탐방 실시  
순천기적의도서관 27기 어린이사서 23명이 지난 17일 진해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해 진해 어린이들을 만났다. 이번 탐방은 진해해양공원과 솔라타워를 방문해 책 속에서 배운 지식과 장소를 눈으로 확인했으며 진해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해 진해 어린이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순천=조순익 기자

## 장흥군, 재향 향우 '고향사랑기부' 물결 이어져

재경 장흥군향우 7명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재경 장흥군향우회들이 연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병준, 김정전 전 재경향우회장 백희선, 이대식, 김도훈, 이종대, 백황선 향우가 참석했다.

향우들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와 함께 장흥군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장흥군 출신 김경협, 백해련, 위성곤, 문진석, 김승남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해 향우들

을 격려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병준 전 재경장흥군향우회장은 평소 고향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고 향우들의 친목과 화합에 힘써왔다. 오병준 회장은 "고향 장흥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모든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을 갖고 많이 동참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고향사랑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향우회원들의 기부금은 더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미래셋증권 최현만 회장  
강진고향사랑 담례품 재기부



미래셋증권 최현만 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받은 담례품을 고향마을에 재기부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진군에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최 회장이 담례품으로 받은 강진사랑상품권 150만원을 다시 강진군 군동면에 기부했다.

최 회장은 군동면 영포마을 출신으로 고향 군동면의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담례품을 재기부했다.

최 회장은 1989년 한신증권에 입사해 직원 시절부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평사원에서 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년 동안 주요 계열사의 CEO를 두루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셋증권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최현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재기부한 강진사랑상품권이 군동면의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오고간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와 함께 담례품 재기부를 통해 깊은 고향 사랑을 실천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더욱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그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아동권리교육 추진  
광양시와 (사)굿네이 버스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17일 광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동위원 및 보호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시교육청 'AI광주미래교육 정책 설명회' 호응

에듀테크 활용 사례 공유·AI광주미래교육의 방향성 제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교육원 등에서 각각 학교 교원(원) 및 교육전문직 38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 AI광주미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발표한 AI광주미래교육의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AI코스웨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융합 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AI광주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시교육청은 AI광주미래교육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도입 배경 및 추

진 현황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상의 유의점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A팩토리 구축, 광주아이온(AI-ON) 등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히 공유해 시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특장'을 진행했다. 이는 세계적인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수가 됐다.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 등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광주교육의 미래를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는 평이다. /조선주 기자

## 순천소방, 기술경연 구조견 분야 '개인1위'

소방장 손도환·구조견 장고 개인전 1위...단체전 4위



순천소방서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견 분야에서 개인전 1위, 단체전 4위의 성적을 거뒀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매년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구조, 구급, 화재조사, 구조견, 드론, 몸장 등의 12개 분야에서 총합공주시에서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각 종목당 시도별 1위에 입상한 대표자들이 모여 최고를 가리기 위해 경기를 펼치는 행사다. 119구조견 분야에는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소속 소방장 손도환(구조견 장고), 소방장 박정빈(구조견 화랑)이 전남소방본부를 대표해 출전했다. 구조대원들과 구조견은 종합전술 평가와 산악수색능력평가로 개인전 1위(소방장 손도환, 구조견 장고), 단체전 4위(소방장 손도환, 박정빈, 허종진, 구조견 장고, 화랑)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순천=조순익 기자

## 목포대,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선정

'전라권 유일'...8월부터 12월까지 연수 진행

국립목포대학교 체육학과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사 연수기관 지정 공모'에서 전라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지도사 연수기관 지정은 정부의 국가 체육지도사 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모가 추진됐으며 서울,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각 1개소씩 총 5개소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립목포대 체육학과는 전라권 유일의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전남권에는 연수원이 없어 이지역의 생활스포츠지도사 합격자들은 타 지역으로 원정 연수를 떠나는 실정이었다. 체육지도사 연수원장 박희석 교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에 선정됨으로 연수생들이 스포츠 지도 현장에 꼭 필요한 지식과 능

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운영해 전남도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남도 체육인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국립목포대 체육학과는 전남도 체육회, 목포시 체육회, 무안군 문화체육과, 목포과학대학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전남도 17개 시군 체육회와 협업을 맺었다. 체육학과 김선희 학과장은 "이번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선정은 전남도 생활체육인과 체육학과 학생들이 지도사로 양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급 생활체육지도사 연수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목포대 체육지도사 연수원은 필기,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일반수업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광양 홍보대사 위촉

2년간 세계에 광양시 알리는 역할 수행



광양시는 얼음 위 세계기록이 있는 맨발의 사나이로 조승환 씨를 광양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조승환 씨는 이날 시청에서 정인화 시장과 함께 위촉식을 갖고 2년간의 홍보대사 임기를 시작했다. 홍보대사는 문화·예술·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광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광양을 알리며 시장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광양 출신으로 얼음 위에 맨발로 오랫동안 서 있는 세계신기록 보유자이자, 국제환경 운동가이다. /광양=조순익 기자